

충장로에 ‘홍콩의 거리’ 내달 개장...“맛·멋 경험하세요”

동구, 2억 투입 막바지공사 진행
쇼핑·음식·문화 등 복합 콘텐츠
“야간 시간대 상권 활성화 기대”

광주 동구 충장로에 여권 없이도 홍콩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홍콩의 거리’가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홍콩의 거리’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충장로 3가 충장로안길 5-5 일원 약 70m 구간의 거리에 조성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동구는 이곳에 젊은 감성을 담아 지역내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콩의 거리 조성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된 폐점포 밀집 지역이다.

동구는 대상지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 자산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도 ‘작지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다.

당초 올해 2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홍콩의 거리 조성사업은 대상지 선정 과정 중 임대료 조정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동구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인 시너지 타워가 지역 건설경기 약화와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약화를 이유로 모회사인 케이에이치㈜가 경영난에 처하자 5월로 예정된 공기터미널 개관을 전격 연기했고, 동구와 함께 추진 중인 ‘홍콩의 거리’ 조성사업에서도 공식적인 철수를 선언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동구청과 임대인, 주변 상인들의 노력 끝에 사업 대상지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를 전격 결정하면서 홍콩의 거리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14일 공사를 재가한 홍콩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순항 중이다.

홍콩의 거리는 단순한 테마 거리를 넘어 실제 홍콩 현지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레스토랑, 주점, 디저트 카페, 위스키 바 등 다채로운 점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야외 테이블, 네온사인, 한자 조형물, 홍콩 스타일 간판 등을 설치하고 쇼핑,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구성해 충장로 전체의 활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물품 발주와 설계도면 제작, 홍콩의 거리 내부 창업자 사업자 등록에 이어 오는 26일



광주 동구 충장로 3가에 조성될 ‘홍콩의 거리’ 조감도. 광주 동구 제공

부터는 리모델링 공사와 창업 청년들의 옥외영업신고 허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충장상권활성화추진단은 다음달 첫째주까지 간판설치, 골목길 정비공사를 마무리한 뒤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30일 가오픈할 예정이다.

정일성 충장로 1~3가 상인회장은 “충장로는 언제나 광주에서 가장 감각적인 상권이었고 이번 ‘홍콩의 거리’ 조성은 그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결정에 감사드린다. 상인들 역시 기대가 큰 만큼 이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태훈 충장상권 활성화추진단장은 “충장로 1~3가에 밤까지 머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홍콩의 거리를 통해 야간 시간 충장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 작은 시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문을 열고 주변 공실이 줄어드는 등 창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민 홍콩의 거리 창업자 대표는 “홍콩에서도 볼 수 없게 된 과거의 화려한 밤거리의 생활상을 극대화할 생각이다”며 “광주에서 홍콩의 옛 풍경을 만나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매우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여행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홍콩 음식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만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완탕면 같은 홍콩 현지 메뉴들을 중화풍의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화정아이파크 시설물 안전점검

광주 서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자문단, HDC현대산업개발 등 현장 관계자들이 22일 화정아이파크에서 필러소프트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소년 금남로로 온다’ 내일 5·18청소년문화제

밴드 공연·댄스·보컬 등 다채

5·18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오월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특별한 축제가 금남로에서 펼쳐진다.

22일 5·18행사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금남로 1~3가 차 없는 거리에서 5·18청소년문화제 ‘소년, 금남로로 온다’를 개최한다.

이번 ‘소년, 금남로로 온다’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총 33개의 부스가 운영되

는데 그 중 30개가 청소년 주도 부스로 채워진다.

특히 ‘내가 만든 518노선’, ‘RED : 5월을 먹다’ 등 5·18정신을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체험 및 참여 부스가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한울초, 지산중, 운남고 등 학교 단위 청소년부터 광주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 소속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다.

또한 22개의 거리 공연 역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선보인다.

밴드 공연, 댄스, 보컬 등 청소년들의 끼와 기

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며 퍼포먼스, 랩,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금남로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특히 전남장성교육지원청의 어울림 학생 뮤지컬 동아리 ‘하랑’이 5·18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준비했고 어쿠스틱 공연팀 ‘나린’과 전자음악 밴드 ‘가락’도 특별 공연을 이어간다.

이번 행사의 공식 개회식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유정 전남대사범대부설고 1학년 학생이 사회를 맡아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기념사와 행사위 오병운 상임행사위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수민 기자

북구,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광주 북구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주민 편의 증진, 고충 민원 해결, 주민 체감형 신규 시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 모범사례를 선발·포상해 조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구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도 △적극 및 창의성 △업무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의 항목을 평가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5개 사업이 선정

됐다.

먼저 최우수상은 ‘삼호축산 약취배출시설 폐쇄’ 사례로 결정됐다.

지난 2023년부터 양산·운암·동림동 일대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700여건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체 TF팀을 구성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사업장과 적극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최환준 기자

셀리아의 특별한 케어!

영롱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피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약속

건강한 피부 | 빛나는 삶 | 특별한 케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문의 : 080-385-0080

CELLIA

